Symphony No. 4 "Los Angeles"

- □□

정보

Arvo Pärt: Symphony No. 4 “Los Angeles”

개요
곡명: Symphony No. 4 “Los Angeles”
작곡가: Arvo Pärt (1935-)
완성: 2008년
장르: 현악 오케스트라 , 하프, 팀파니와 타악기를 위한 기악 교향곡
위촉: Los Angeles Philharmonic Association과 음악감독 Esa-Pekka Salonen, Canberra International Music Festival/Ars Musica Australis, Sydney Conservatorium의 공동 위촉
헌정: Mikhail Khodorkovsky
세계 초연: 2009년 1월 10일, 로스앤젤레스 Walt Disney Concert Hall, Los Angeles Philharmonic, Esa-Pekka Salonen 지휘
출판: Universal Edition
구조: 세 부분. I. Con sublimità – Marcando con maestà – Pacato, II. Affannoso – Un poco più affannato, III. Insistentemente – Con intimo sentimento – Deciso

출판사: Universal Edition 작품 안내

Wikipedia: Symphony No. 4 (Pärt)

Arvo Pärt의 *Symphony No. 4 “Los Angeles”*는 관악기 없이 현악 오케스트라 , 하프, 팀파니와 타악기로 구성한 기악 교향곡이다 . 수호천사를 위한 러시아 정교회 카논의 텍스트 구조가 세 부분의 배치와 세부
지시어에 영향을 주며, 각 부분은 느린 정적과 반복되는 음형, 점차 단호해지는 종결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한다. 작품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Esa-Pekka Salonen의 위촉으로 쓰였고, 2009년 1월 10일 Salonen 지휘의 세계 초연에서 처음 연주되었다 .

출판 정보와 위촉

Arvo Pärt Centre의 작품 페이지는 Pärt가 2007년 위촉을 받았고 2008년에 교향곡을 완성했다고 설명한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의 작품 안내도 2007년 2월 수호천사 카논을 작업하던 시기에 새 관현악곡
제안을 받았다고 적는다. 반면 센터의 2016년 뉴스는 LA Philharmonic과 전 음악감독 Salonen의 공동 위촉

연도를 2008년으로 표기한다. 제안과 공동 위촉을 가리키는 연도가 자료마다 다르므로, 작곡연도 2008년과 위촉 시점 2007-2008년을 구분해 기록한다.

공식 위촉자 목록에는 Canberra International Music Festival와 Ars Musica Australis, Sydney Conservatorium도 포함된다. 출판사는 Universal Edition이며, 작품 페이지에는 세 부분의 지시어와 악기 구성이 함께 실려 있다. Pärt가 같은 시기에 작업하던 수호천사 카논은 성악곡의 가사로 사용되지 않고, 기악 교향곡의 형식과 표현을 조직하는 원천으로 작동한다.

소요 시간

Arvo Pärt Centre는 작품의 길이를 34분으로 제시하고,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약 32분으로 안내한다 . 내부 연주 자료에는 35-38분 범위도 있으므로 지휘자의 템포와 녹음 조건에 따라 실제 시간이 달라진다. 공식 카탈로그 값과 특정 공연의 실측값을 분리하면 서로 다른 시간 표기가 같은 작품을 가리킨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

편성

현악: 현악 오케스트라 .
하프: 하프 파트.
타악: 팀파니, 큰북, 차임, 크로탈, 마림바, 시즐 심벌, 서스펜디드 심벌, 탐탐, 트라이앵글 .

관악기는 편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Arvo Pärt Centre는 이를 현악 오케스트라 , 하프, 팀파니와 타악기로 요약하며, Los Angeles Philharmonic은 타악기 목록을 위와 같이 세분한다. 공연용 총보와 파트보에 따른 인원과 세부 배치는 자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고정된 연주 인원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카논이 만든 세 부분의 형식
Pärt는 작품의 바탕이 된 수호천사 카논을 성악으로 옮기지 않았다. 대신 카논의 절과 기도문이 가진 순서, 행의 음절과 강세, 반복되는 짧은 기도를 기악 형식에 반영했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이 텍스트가 세 악장 구분과 작은 형식 단위, 음악의 표현적 성격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Arvo Pärt Centre의 작품 페이지는 각 부분이 어떤 기도 구절에 대응하는지도 개괄한다.

I. Con sublimità – Marcando con maestà – Pacato

첫 부분은 세 구간으로 나뉜다. Con sublimità에서 수호천사를 부르는 트로파리온이 형식의 출발점이 되고, 짧은 삼위일체 찬양과 성모 찬가가 뒤따른다. Marcando con maestà는 앞선 기도의 장중한 윤곽을 더 뚜렷하게 만들며, Pacato는 첫 부분을 가라앉은 호흡으로 마무리한다 . 이 순서는 실제 가사를 노래하는 장면이 아니라 카논의 구성 요소를 악기 소리의 길이와 반복으로 옮긴 결과다.

II. *Affannoso – Un poco più affannato*

둘째 부분은 카논 끝기도의 큰 부분을 바탕으로 한다. *Affannoso*와 *Un poco più affannato*라는 지시어는 같은 기도 안에서 압박이 높아지는 두 구간을 구별한다. 짧은 수호천사 기도는 반복되는 후렴처럼 기능하며, 현악 트리올 피치카토 모티프가 그 반복을 담당한다. 이 모티프는 둘째 부분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다른 부분에도 흔적을 남긴다.

III. *Insistentemente – Con intimo sentimento – Deciso*

끝기도는 셋째 부분까지 이어진다. *Insistentemente*는 기도의 지속을, *Con intimo sentimento*는 내면을 향한 독주 바이올린의 선율을 가리킨다. 마지막 *Deciso*는 코다로 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며, 코다는 다시 짧은 삼위일체 찬양으로 작품을 닫는다. 따라서 종결부는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기보다 처음의 기도 구조를 다른 음향 방향으로 되돌린다.

반복 음형과 음향의 방향

Arvo Pärt Centre는 현악과 크로탈 파트에 계속 나타나는 하강 음계를 작품의 중심 축으로 설명한다. 이 하강 운동은 마지막에 상승 운동으로 바뀐다. 같은 음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며, 음역과 악기 조합이 바뀌면서 각 부분의 긴장도가 달라진다. 이 변화는 세 부분을 하나의 연속된 형식으로 묶는 청취 단서가 된다.

둘째 부분의 현악 트리올 피치카토는 수호천사를 향한 짧은 기도처럼 반복된다. Pärt Centre는 이 모티프가 다른 부분에도 나타난다고 설명하므로, 특정 악장에만 속한 주제로 한정하지 않는다. 하프와 타악기는 이 반복을 현악과 겹치거나 끊어 주며, 관악기 없이도 음향의 밀도와 공간감을 조절한다.

둘째와 셋째 부분에는 장조와 단조가 동시에 들리는 다조적 화음이 간헐적으로 나온다. Pärt는 이런 화음 안에 희망이 숨겨져 있다고 설명하고, 둘째 부분의 삼온음 간격을 사용하는 음악은 인간의 죄 목록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 해석은 작곡가의 설명에 귀속하며, 교향곡 전체가 일관된 다조성으로 진행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Con intimo sentimento*가 붙은 셋째 부분의 바이올린 솔로도 공식 설명에서 말하는 개인적 기도의 성격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반복과 대비는 Pärt의 `tintinnabuli` 양식 안에서 작동한다. 공식 센터는 수호천사 주제가 엄격한 `tintinnabuli` 규칙을 따르는 음향 구성에서 계속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이 작품의 양식을 말할 때에는 그 공식 분류를 사용하되, 개별 음정 배열과 파트별 규칙은 총보를 직접 대조한 범위에서만 확정한다.

도시명과 헌정의 맥락

“Los Angeles”라는 부제에는 두 가지 현실적 배경이 있다. 하나는 Los Angeles Philharmonic과 Salonen이 작품을 위촉하고 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초연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이름이 스페인어로 천사들을 뜻한다는 점이다. Pärt가 작업하던 수호천사 카논과 도시명이 연결되면서 부제가 정해졌지만 , 이 교향곡은 도시의 풍경이나 사건을 묘사하는 표제 음악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작품은 2003년에 투옥된 러시아 기업가 Mikhail Khodorkovsky에게 헌정되었다 . Pärt는 헌정이 정치적
맥락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비극 속에서 도덕적 승리를 이룬 사람과 인간 영혼의 힘, 존엄에 대한 경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Khodorkovsky의 사건을 교향곡의 각 음형에 일대일로 대응시키기보다 , 헌정의 사실과 작곡가가 밝힌 보편적 의미를 나누어 서술하는 편이 정확하다.

초연과 녹음의 전승
세계 초연은 2009년 1월 10일 로스앤젤레스 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Los Angeles Philharmonic과 Esa-Pekka Salonen의 연주로 열렸다. 공식 작품 페이지는 2010년 2월 20일 Tallinn Niguliste 교회에서 Nargenfestival Orchestra와 Tõnu Kaljuste가 에스토니아 초연을 했다고 덧붙인다. 후속 초연 기록은 세계 초연과 별도로 기록된다.

초연 연주는 ECM New Series 음반으로도 남았다. Arvo Pärt Centre는 이 음반과 관련해 2011년 Classic Brit Award의 올해의 작곡가 부문을 받았고, 클래식 현대 작품 부문 그래미 후보에 올랐다고 기록한다. Deutsche Grammophon에는 같은 연주진의 Walt Disney Concert Hall 실황이 2009년 9월 15일 디지털 발매로 등록되어 있다. ECM 음반과 DG 실황은 녹음 시기와 발매 형식이 다른 자료이므로 하나의 음반으로 합치지 않는다.

카논의 실제 가사를 제시하지 않아도 세 부분의 순서와 반복 음형을 먼저 들을 수 있다. 첫 부분의 세 구간, 둘째 부분의 피치카토 후렴, 셋째 부분의 내밀한 바이올린과 마지막 상승 운동이 서로 다른 템포 지시어 속에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청취 순서는 작품의 종교적 배경과 기악곡으로서의 독립성을 함께 드러낸다.

주요 자료

Arvo Pärt Centre, Symphony No. 4 “Los Angeles”

Arvo Pärt Centre 공식 영문 작품목록

Arvo Pärt Centre, 세계 초연과 위촉 소식

Los Angeles Philharmonic, 작품 안내

Universal Edition, Symphony No. 4 “Los Angeles”

Deutsche Grammophon, Pärt Symphony No. 4 / Salonen

Arvo Pärt Centre, 공식 연대표